

무허가 축사 적법화 순항

임실군, 축산분야 중심 TF팀 구성·맞춤형 상담 등 추진율 40% 돌파

임실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지역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40%로, 기대 이상의 빠른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임실군 관내 축산농가는 879호로 이 중 310호가 무허가 축사다. 군은 이 중 40%인 126농가의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186농가에 대한 적법화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미완료 농가 중 현재 130여 농가는 측량 완료 후 설계작성과 서류 준비 등으로 향후 적법화 추진율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그동안 관내 상당수 농가는 축산업의 규모화와 전입과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위반에 의해 무허가 축사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임실군에서는 적법화 정책에 맞춰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건축물과 가축건축물 적용대상 확대를 비롯해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축사 제한거리 재 설정, 이행강제금 경감등 제도 개선 등 적법화 관련 지도·홍보와 이행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이해를 돕고 홍보차원의 농가별 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 안내 등을 실시 중이며, 건축·환경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전담공무원도 지정해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적법화 관련 지도 및 홍보, 이행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읍면 순회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무허가 축사 읍·면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총 12회에 걸쳐 읍·면을 돌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심 민 군수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적법화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으로 거듭나고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해 온 모든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순창 청년 간담회 자료사진.

“창업 꿈꾸는 청년에 날개 달아드려요”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내달 9일까지 대상자 접수

순창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군은 우선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시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시설 인테리어 관련비용 및 기계 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창업관련

시절 자금 중 융자금 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부업종은 제외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2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수주 군수는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마중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유능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임실군이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지역 아동들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 학부모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군은 이달 안에 어린이집 10개소의 모든 보육실 50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 날씨에 어린이들의 실내활동이 많은 반면 환기를 자주 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뒤따르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학부모들이 크게 좋아하고 있다. 군은 또한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게 설과 추석명절 처우개선을 지원,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더욱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심 민 군수는 "설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

남원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설명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물가상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2018년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물가안정대책은 ▲물가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설 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32개 품목 집중관리 및 조사공보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 ▲설 명절 물가 특별지도·점검 실시 ▲전통시장 이용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 홍보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에따라 사과, 배 등 농축산물 16종, 개인서비스 2종, 쌀, 양파, 두부 등 생필품 14종 등 총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 현장에 파견해 물가 동향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매주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 위생, 농·축산물 등 4개분야에 걸쳐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인삼품목 현지 계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한다. 이와 더불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 및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명장이 지은 전통한옥 남원에촌 특별할인

한국관광의 별 선정 기념 3월 22일까지 매주 평일 최대 65% 할인 혜택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한옥 체험 시설-남원에촌(by kensington 이화남원에촌)'이 시민체험 특별할인기간을 운영한다.

남원시와 (주)이랜드파크가 손을 잡고 운영하고 있는 남원에촌은 2017년 한국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관광지원분야 최고권위의 상인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한국관광공사 주관)됐다.

남원시는 이를 기념해 시민들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체험후기 등을 통한 소통행정으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오는 1월 28일

부터 3월 22일까지 매주 평일마다 시민체험 특별할인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상가의 65% 할인 된 요금(2인실 7만원, 3인실 8만8000원, 4인실 10만5000원, 6인실 14만원, VIP 24만5,000원~28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체험객은 조식(2인)을 포함한 각종 객실용품(어메니티), 미니바(음료, 한과 등) 등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 되는 모든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체험신청 및 안내는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남원시 관광과(☎ 063-620-617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6년 개관한 남원에촌은 최기영 대목장, 이근복 번와장을 비롯한 한옥명장들이 전통방

식으로 지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 한옥이다.

시멘트, 스티로폼, 화학단열제 등 인위적인 재료를 배제하고 소나무, 옷칠, 황토, 대나무와 해초 풀 등 자연에서 얻은 귀한 재료만 사용하여 고(古)건축을 재현하였다.

남원에촌은 개관 1년 반 만에 한국관광의 별에 오르는 등 남원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남원에촌 조성사업은 남원시가 관광투입 주변 관광권역을 확대하여 관광체질 개선 및 구도심권 활성화와를 위해 관광투입 인건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1지구 전통한옥 체험단지과 2지구 전통문화 체험 단지를 비롯하여 총 5차에 걸친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쌀 과잉문제 해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순창군이 올해 '논 타작물 전환 목표'를 362ha로 정하고 쌀 과잉문제 해결과 타작물 식량자급률 높이기에 나선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의 공급과다 현상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순창군은 2017년산 쌀 변동 직불금을 받은 논지에 벼 대신 타작물을 최소 1000㎡ 이상 재배하고 농지 향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소득 감소를 보전해 줄 예정이다. 또 지난해 쌀 적정생산에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도 올해 신규로 최소 1000㎡ 이상 추가로 신청할 경우 50%를 지원한다.

올해 순창군의 논 타작물 목표면적은 362ha로 12억 3천만원이 지원된다. 사료작물은 ha당 400만원, 일반작물·쪄겨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수



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품목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을 통해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2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사업신청서 1부와 약정서 2부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이 최고의 품질을 '이웃속 행복입니다'

열매의 고장 임실이 빚어낸 보물, 농축산물!

이웃속 행복입니다
상실할 수 없는 마음의 보물 창고

이웃속 행복입니다
맛이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웃속 행복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

이웃속 행복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

이웃속 행복입니다
맛이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웃속 행복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

이웃속 행복입니다
맛이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웃속 행복입니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